

쇼트트랙 1·2등은 가위·바위·보 順

대표선발전 '짬짜미 사건'이어 학생 선수권도 승부 조작

국가대표 출신 코치가 진학률 높이려 주도... 빙상계 당혹

올해 '짬짜미 파동'으로 심한 흥역을 치른 한국 쇼트트랙이 또 술렁이고 있다.

이번에는 고등학생이 출전한 대회에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혐의가 불거지면서 국가대표 출신 유명 코치 이모(45)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코치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고3 제자들이 입상하게끔 경기 결과를 짜맞춘 혐의(업무방해)로 A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코치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경기는 지난 3월초 열린 '성남 시장배 전국 중고 남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 지난 4월에 대표선발전 짬짜미 파동 이후 이런 관행을 없애고자 국가대표 출신 유명 코치 이모(45)씨에게 사전구속영장까지 발부됐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고3 제자들이 입상하게끔 경기 결과를 짜맞춘 혐의(업무방해)로 A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코치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집접해지던 '짬짜미 사건'이 또 다른 형태로 도마에 오르자 대한빙상경기연맹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빙상경기연맹은 국가대표 선발전 짬짜미 파동 이후 이런 관행을 없애고자 국가대표 선발전에 타임레이스(일정 구간의 통과 속도를 겨루는 방식)를 도입했다.

"트랙을 도는 기술보다는 힘과 체력만 강한 선수가 뽑힐 수 있다"는 일부 비판 속에서 새로운 국가대표 선발전은 치러졌다. 하지만 새롭게 선발된 쇼트트랙 선수들은 이달 초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3차 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막고 4차 대회에서는 전체 금메달 10개 중 8개를 훔쳤을 무렵을 계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가대표가 아닌 어린 학생들도 짬짜미에 동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쇼트트랙으로서는 '짜고 치는 종목'이라는 불명예를 털어버리는데 더욱 노력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연합뉴스

를 높여주고자 경기 중 서로 도와줬다는 것이다. 이번에 불거진 '고등학생 짬짜미'도 고3 선수들이 입상할 수 있도록 담합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코치들은 미리 가위바위보로 1~3위 우승자를 정해 선수를 지시에 따라 맞춰 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빙상경기연맹은 국가대표 선발전 짬짜미 파동 이후 이런 관행을 없애고자 국가대표 선발전에 타임레이스(일정 구간의 통과 속도를 겨루는 방식)를 도입했다.

"트랙을 도는 기술보다는 힘과 체력만 강한 선수가 뽑힐 수 있다"는 일부 비판 속에서 새로운 국가대표 선발전은 치러졌다. 하지만 새롭게 선발된 쇼트트랙 선수들은 이달 초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3차 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막고 4차 대회에서는 전체 금메달 10개 중 8개를 훔쳤을 무렵을 계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가대표가 아닌 어린 학생들도 짬짜미에 동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쇼트트랙으로서는 '짜고 치는 종목'이라는 불명예를 털어버리는데 더욱 노력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연합뉴스

여자 하이원컵 골프

내년엔 남자투어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최고의 상금을 걸고 열렸던 하이원리조트컵 골프대회가 내년에는 남자대회로 개최될 전망이다.

KLPGA는 "2008년 시작됐던 하이원컵 대회가 올해로 3년 계약이 끝났으며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다"며 "대회를 개최했던 하이원리조트가 내년에는 남자대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에도 총상금 8억원을 내걸어 여자대회 중 가장 큰 액수를 자랑했던 하이원 대회는 내년에는 남자대회인 원아시아투어에 중 하나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서 열린 FITA 월드컵 파이널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왕중왕에 올랐다. 월드컵 파이널은 매년 4차례 월드컵 대회에서 탁월한 기량을 선보인 남녀 8명씩을 초청해 그 해의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다.

윤옥희는 지난달 중국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개인전과 단체전 1위를 차지하면서 2관왕에 올라 위상을 재확인했다.

한편 윤옥희는 오는 25일 낮 12시 30분 경북 예천 흥해체육관에서 회사원 송대선 씨와 웨딩마치를 올린다. /연합뉴스

국제양궁연맹 선정

한국 여자 양궁의 간판 윤옥희(25·예천군청)가 올해 세계양궁을 빛낸 4대 빅스타 가운데 하나로 뽑혔다.

국제양궁연맹(FITA)은 23일 집행부 이름으로 세계 양궁팬들에게 보낸 연하장에 윤옥희와 브래디 엘리슨(미국·이상 리커브), 세르지오 파그니(이탈리아), 알비나 로기노바(러시아·이상 컴파운드)의 사진을 새겼다.

윤옥희는 지난 9월 영국 에든버러에

서 열린 FITA 월드컵 파이널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왕중왕에 올랐다. 월드컵 파이널은 매년 4차례 월드컵 대회에서 탁월한 기량을 선보인 남녀 8명씩을 초청해 그 해의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다.

윤옥희는 지난달 중국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개인전과 단체전 1위를 차지하면서 2관왕에 올라 위상을 재확인했다.

한편 윤옥희는 오는 25일 낮 12시 30분 경북 예천 흥해체육관에서 회사원 송대선 씨와 웨딩마치를 올린다. /연합뉴스

서 열린 FITA 월드컵 파이널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왕중왕에 올랐다. 월드컵 파이널은 매년 4차례 월드컵 대회에서 탁월한 기량을 선보인 남녀 8명씩을 초청해 그 해의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서 열린 FITA 월드컵 파이널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왕중왕에 올랐다. 월드컵 파이널은 매년 4차례 월드컵 대회에서 탁월한 기량을 선보인 남녀 8명씩을 초청해 그 해의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어는 프로선수들로부터 새로운 대회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 대회를 투어에 편입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면서 명분을 세우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과 호주, 중국이 회원국이 돼 새로운 지역 투어로 출범한 원아시아투어는 올해 매경오픈과 SK텔레콤오픈, 한국오픈을 편입시킨데 이어 내년에는 하이원 대회를 새로 창설하게 됐다. 원아시아투